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심의 총평

- 본 사업은 기초문화재단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기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을 모색하고 3년차의 계획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짐. 올해 사업에는 8개 지역의 문화재단이 참여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5개 재단을 선정하고 3개 재단을 조건부로 선정하였음
- 본 사업은 자원발굴, 협력체계구축, 실행확산의 3단계로 나누어 설계하는데, 여러 재단에서 각 단계를 연차별 실행 단계로 이해한 점이 아쉬움. 각 단계는 규모나 범위를 조정하여 매년 계획,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자원발굴의 경우 많은 재단이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외부 용역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은 점 역시 아쉬움. 외부 전문가관이나 전문가에게 용역으로 맡길 경우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접목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역의 필요와의 직접적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연구는 재단의 비전과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함
- 또한 연구 외에 지역의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음. 지역의 필요와 지역의 자원, 요구를 이해하고 발굴과 동시에 협력체계와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발굴의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기초단위에서 재단이라는 공공부문 행정이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할을 자각하고 학습하는 기간으로서 사업의 의미를 지님. 바로 도출하는 성과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재단 비전을 가지고 성과창출을 위한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현장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자기 역할을 찾고 규정하는, 전문성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사업계획의 내용에서 구체성에 아쉬움 있었으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나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점은 고무적임
- 향후 기초재단별 격차 해소를 위한 재단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 있으며, 네트워크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기획될 필요 있음
- 보다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계획과 실행을 위하여 교부 전에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함

심의위원

홍현희

윤전우

백희주

(서명)

(서명)

(서명)